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O2 포집장비 설치비 3,000만달러

선박에 탄소포집 장치 적용이 당장 가능한 것으로 타당성 조사결과 확인됨. 배출되는 모든 CO2의 90%를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비용은 약 3,000만달러 정도, 시스템 운영비는 연간 200만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Strategic crude releases 'unlikely to be negative' for tankers, Clarksons says

Clarksons에 따르면, 미국 주도 전략적 비축유 방출은 탱커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기에 원유시장의 백워데이션을 야기할 것으로 설명함. (Tradewinds)

Covid restrictions halt China feeder services for six weeks

COVID-19 조치로 중국 남부 및 홍콩 터미널 정체현상이 심화되며 피더선 서비스를 6주간 중단하게 됨. 해당 조치는 규정 이후인 2022년 2월 5일까지 유지됨. 이에 ONE 얼라이언스는 최종목적지로 향하기 위한 수출화물을 신는데 지연이 있다고 언급함. (Tradewinds)

중국, 세계 1위 선주국

컨테이너 호황으로 중국이 선가 및 척수 기준 세계 1위 선주국으로 등극함. 중국 국적선 선대 가치는 총 1,910억달러에 달함. 이는 컨테이너 시장 호황과 컨테이너선 선가 상승에 기인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Mozambique's long delayed sixth licensing round will be launched tomorrow

오랜 기간 연기되었던 모잠비크 6차 Licensing Round가 25일 공식 시작됨. 2018년 시작 예정이었지만 원자재가격, Covid-19, 정치적 이유 등으로 미뤄졌음. (Upstream)

현대로템, 방위사업청 K1전차 외주 정비 계약 3,093억원으로 증액

현대로템이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K1전차 외주 정비 계약금액을 2,346억원에서 3,093억원으로 정정함. 계약기간은 2024년 11월 29일 까지임. (이데일리)